

PA-12

경북지역 들깨 품종의 생육 및 품질 특성

송영운^{1*}, 구은영¹, 이중환¹, 김상국¹¹경상북도농업기술원 생물자원연구소

[서론]

들깨는 식물분류학상 꿀풀과에 속하는 1년생 초본으로 동부 아시아 지역이 원산지로서 한국, 일본, 중국 동북부 등의 지역에서 주로 재배되어온 유지작물이다. 예로부터 들깨는 쓰임새도 다양하여 식용 기름, 등화용 기름 이외에도 잎에서 나는 독특한 냄새를 가축들이 싫어하는 것을 이용해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밭 들레에 심기도 했다. 최근에는 들깨 기름에 들어있는 α -리놀렌산이 오메가-3 지방산으로서 고혈압 등의 성인병 예방과 학습 능력 향상에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새로운 소득 작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재료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들깨 신품종의 생육 및 특성을 비교하여 경북지역 적품종 선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2018년에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생물자원연구소(안동)에서 들깨 표준재배법에 따라 수행하였다. 시험재료는 국립식량과학원에서 육성한 ‘안유’, ‘들쌈’, ‘다미’, ‘소담’, ‘들향’ 등 5품종으로 하였다. 생육특성, 내병성, 내도복성, 수량구성요소를 조사하였으며, 조사 및 평가방법은 농업과학기술 연구조사분석기준(농촌진흥청, 2012)에 준하였다.

[결과 및 고찰]

들깨 품종별 성숙기는 ‘안유’가 ‘들쌈’, ‘다미’ 보다 14일 정도 빨랐다. 경장은 ‘다미’가 142cm로 ‘들향’ 보다 25cm 더 컸고, 분지수 및 마디수는 ‘들쌈’, ‘다미’가 가장 많았다. ‘안유’를 제외한 모든 품종이 도복이 발생하지 않았고, 병해충도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들깨 품종별 화방군수는 ‘들쌈’, ‘다미’, ‘소담’이 58~66개로 ‘안유’, ‘들향’ 보다 평균 9개 많았지만, 군당삭수는 ‘안유’, ‘들향’이 40~41개로 ‘들쌈’, ‘다미’, ‘소담’ 보다 평균 9개 많았다. 화방군장은 ‘안유’가 16.5cm로 다른 품종 보다 평균 4.5cm 길었다. 천립중은 ‘다미’가 4.13g으로 가장 무거웠고, 다음으로 ‘들쌈’, ‘안유’가 무거웠다. 수량은 ‘다미’가 121kg/10a로 가장 높았지만 다른 품종과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들깨 품종별 착유량은 ‘소담’이 361.2g/kg으로 가장 높았고, ‘안유’, ‘다미’가 299.5~303.3g/kg으로 가장 낮았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사]

본 연구는 농촌진흥청 어젠다 사업(사업번호: PJ013378052019)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결과로 이에 감사드립니다.

*주저자: Tel. 054-859-5123, E-mail. crycek09@korea.kr